

스타일이 있는 가든 디자인 제안 ⑦

# 실내에 활기를 불어넣는 플랜트 조경

집은 내키는 대로 쉽게 바꿀 수 없지만, 정원은 계절에 따라 기분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즐길 수 있다. 꽃을 기다리는 설렘을 주고,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는 행복한 정원. 가든 디자이너 강혜주 씨가 제안하는 정원 디자인 속에서 나만의 꿈을 찾아보자.

LIVING & DECO

정리 이세정 취재협조 외인드가든디자인



정원의 필수품이기도한 것이 오벨리스크다. 식물 덩굴을 올리는 기능과 장식적 기능을 갖는다. 오벨리스크 화분인 셈이다. 으아리로 해를 거듭하면 더 많은 꽃이 핀다.

## ■ 고양어울림누리 플랜트 실내조경 사례

경기도 고양어울림누리는 문화체육센터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적 장소다. 이곳은 수영장 락커와 휴게실이 좌우로 배치되어 있고, 그 앞쪽에 커피숍이 자리한다. 실내 조경은 미적인 기능 뿐 아니라, 각 공간을 분할하는 파티션 역할까지 해야 했기에 아늑한 담장 같은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했다.

이렇게도 자연 채광이 전혀 없는 곳이라, 식재는 그늘에서도 잘 견디는 종으로 택했다. 녹보수나 해피트리, 스파트필름, 테이블야자, 팔손이 등이 그런 종류다. 해피트리를 가로수처럼 길게 세우고, 그 아래는 잔잔한 가운데 걸러감 있는 식재로 포인트를 더했다. 대신 아이비 등은 스킨답서스가 즐거움을 내릴 때까지 몇 달만 견디면서 의무를 다하기도 한다.

꽃을 피우는 모든 식물들은 많은 빛을 필요로 한다. 그나마 난이나 관엽류의 식물들은 짧게나마 꽃을 피고나면, 잎의 초록을 오래도록 감상할 수 있다. 그것 역시 식물이 주는 선물이다.

내가 멘토로 삼고 있는 한 정원디자이너는 이런 말을 했다.

“한때라도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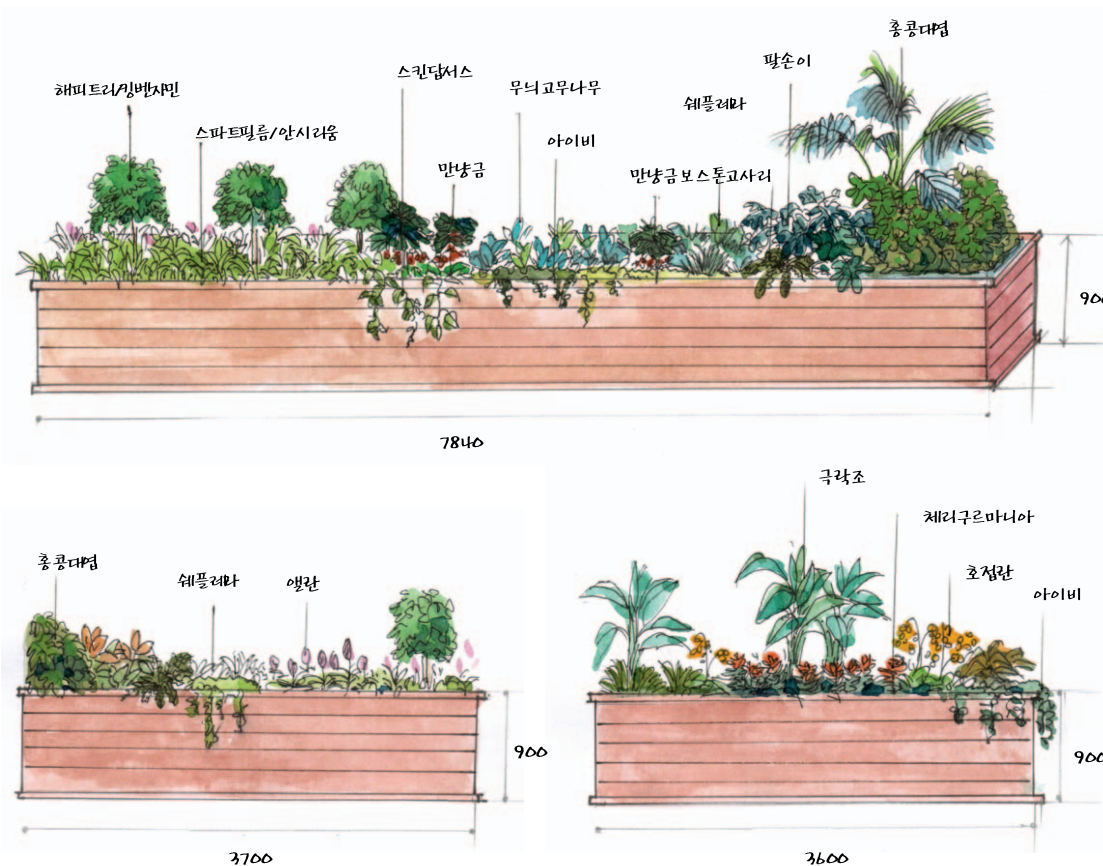
입구 좌측은 금성크로톤, 채리구즈마니아, 안시리움, 스킨답서스, 아이비 등으로 낮은 키 식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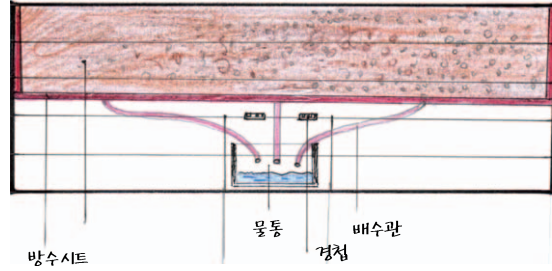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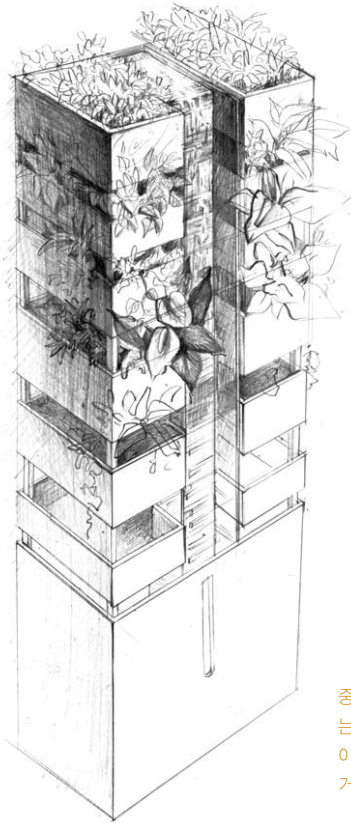
입구 우측은 안시리움, 금성크로톤, 채리구즈마니아, 웨플레라 등을 심어 좌우 식재의 통일감과 변화를 준다.



꽃이 지고 난 후에는 시든 꽃잎을 따주고 새 것으로 부분 식재를 갈아주는 관리가 필요하다. 수개월이 지나며 아이비는 도태되고 스킨과 산호수가 자리를 잡아간다.



■ 실내 플랜트의 다양한 유형



관리 TIP

플랜트는 실내외 빛의 정도에 따라 식재구성이 달라져야 한다. 채광이 안 되는 곳은 관엽류로 잎이 두꺼운 것들로 선택하면 지속력이 길다. 도태되는 식재는 다듬어 따내고 부분 교체한다. 베란다나 발코니처럼 빛과 통풍이 괜찮은 곳에는 플랜트에 야생화와 허브류를 심을 수 있다. 란타나, 프렌치라벤다 등의 허브류는 겨울에 실내에 들여 놓으면 다음 해에도 즐길 수 있다.

중앙에 폭포가 흘러내리는 플랜트, 겨울철 건조한 실내에 가습 효과까지 주는 수직 정원이다. 벽면을 월(wall) 가든 형태로 고정시키는 작업은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나 철거가 힘들다. 대신 이러한 잔합형 플랜트는 식재를 교체하거나 유지 관리하기가 한결 낫다.



일반 가정집 거실에 둔 식재 플랜트, 보스톤 고사리, 제라늄, 탈수염풀을 심어 단순하고 깔끔하게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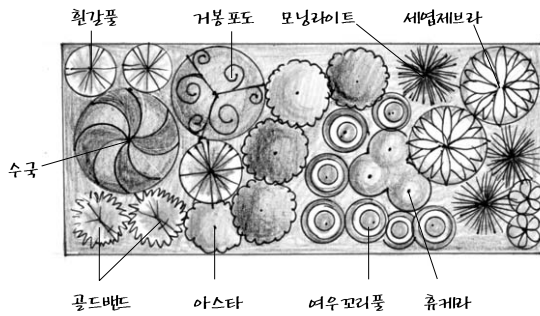
플랜트 하단 배수통



높이가 높은 플랜트는 뒤편으로 물을 끌어 올려 층별로 자동 급수될 수 있도록 했다. 대국도, 팔손이, 산호수, 무늬산호수, 아이비류, 인디애를 상면에서 볼 수 있도록 식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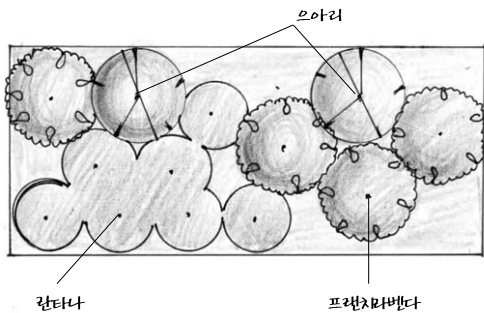
■ 햇살이 좋은 테라스와 야외용 플랜트

상업 공간 플랜트, 키 큰 녹보수와 낮은 스파트필름으로 시원한 느낌을 주었다. 업무 공간에 파티션만 있는 딱딱한 이미지를 녹색으로 간단하게 위로했다.



좌측 플랜트는 산수국, 청사초, 세엽제브라, 모닝라이트, 여우꼬리풀, 아스타, 거봉포도를 올렸다

우측에는 란타나, 프랜치라벤다, 으아리를 두가지 컬러로 올렸다. 햇살이 많이 드는 곳이나, 테라스, 야외에 어울린다. ▲



■ 가든디자이너 · 보타닉아티스트 강혜주



서울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화가로 활동하던 중, 타사와 탐 스텐워드 스미스의 정원에 마음을 빼앗겨 본격적인 정원 디자이너의 길로 들어섰다. 꽃을 주제로 한 4번의 개인전을 열고, 주택과 상업공간 정원 뿐 아니라 공공장소 설치 디렉팅까지 다방면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대표작품으로는 '걸리버가 머무는 자리', '라면정원', '마더스정원' 등이 있고, 올해 핵안보정상회의 포토월, 대구꽃박람회 주제관 등을 직접 디자인했다. 현재 가든디자이너 홍미자 씨와 함께 와일드가든디자인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031-966-5581 wildgarden3@naver.com